

# 국군통합병원 터 도심공원 된다

(광주 서구 화정동)

## 市 900억원대 비용 국방부에 장기 납부... 女高도 신설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국군통합병원' 터가 43년 만에 도심 속 공원이 돼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이 곳은 1980년 5·18 학생 당시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치 장소이자 희생자 사체 보관소로 쓰였던 '한 맺힌' 장소다. 광주시는 16일 "오는 6월 합평군으로 이전하는 국군통합병원 일대 10만 9천㎡(3만3천여평)에 도심공원 9만6천㎡(2만9천평)를 조성하고 여자와 등학교1만3천㎡(4천여평)를 신설하

기 위해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곳은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하지만, 시는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도심 녹지 공간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900억 원에 육박하는 부지 비용은 장기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구체적인 공원조

성계획을 수립, 시민들의 녹지공간과 휴식처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1964년 문을 연 광주국군통합병원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합평군 해보면에 신축, 오는 6월 이전한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노후시설 이전 계획에 따라 통합병원 부지를 감정가 890억 원에 매각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시와 5·18단체, 환경단체들은 병원 부지가 5·18학생의 사적 장소라는 상징성과 수목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공원 조성을 요구해왔다. 광주시에 조성된 도심공원은 북구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일대의 문흥공원이 8만6천㎡(2만6천평)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사직공원은 8만2천600㎡(2만5천평), 광주공원4만3천㎡(1만3천평)이다. 통합병원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지난해 시민공원 겸 청소년관련 시설로 조성된 인접해 국정원 광주지부 터 2만㎡(6천평)와 함께 대규모 도심 녹지 공간이 될 전망이다. /채희정기자 chae@



16일 광주시 북구 생용동 우치동물원 원숭이우리에서 오공이와 오순이가 관람객들이 주는 과자를 받아 먹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우치 동물원 '빠빠용 원숭이' 아시나요

### 오공·오순 남매 우리 탈출 다반사 설새없는 재롱... 관람객들에 인기

'오공이'는 요즘 '오순이'가 알뜰다. 재롱은 내가 피우는데, 맨 날 먹을 것은 자기 먼저 눈 깜짝할 사이에 가라쳐 어쩔만 시간도 없이 '남남'해버린다. 그래도 우리 밖의 세상은 재미있다. 형·누나들이 와서 던져주는 과일과 과자도 맛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딱딱한 것도 없다. 광주 우치동물원의 꼬마 원숭이 두 마리가 인기다. 관람객들은 '빠빠용'처럼 우리 밖으로 빠져나와 재롱을 피우고, 먹을거리를 얻어

가는 일본 원숭이(Japanese macaque·긴꼬리원숭이과) 남매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오공이는 3년생 수컷, 오순이는 2년생 암컷이다. 이들 남매가 '빠빠용'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6개월 전, 옆 집에 사는 5년생 '돼지꼬리 원숭이'가 8cm 간격의 쇠창살 틈새로 우리를 탈출, 관람객들이 주는 과일이나 과자 등을 받아 먹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부터다. 이후 빠빠용 남매는 한 손으로 쇠창살 붙잡고, 또 다른 손으로 관람객들이 주는 먹이감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남매는 최근에는 우리

밖 2~3m 지점까지 걸어나와 유유히 산책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우리 안에 10년생 우두머리 원숭이 등 3마리가 더 있지만, 이들만 우리를 빠져나와 밥벌이를 하곤 들어간다. 빠빠용 남매의 잦은 외출에 사육사와 수의사 등 동물원 관계자들은 여러동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치공원 동물원 최종욱 수의사는 "집단 생활을 하는 꼬마 원숭이가 자신이 속한 집단 규율을 깨고 다른 무리의 원숭이의 행동을 보고 따라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원숭이가 우리를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당분간 그대로 둘 생각이"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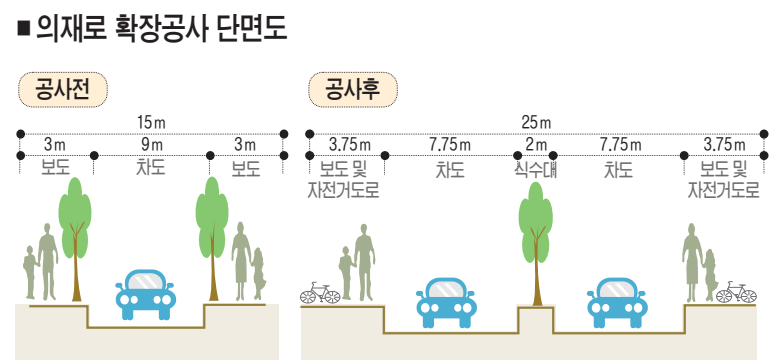
## 의재로·동곡로 확장

〈동구 운림동〉 〈광산구 도산동〉

### 광주시 33억 들여 4차·6차도로... 연내 완공 증심사 입구·옛 송정시가지 체증 해소 기대

광주시 동구 운림동 의재로와 광산구 도산동 동곡로가 잇따라 확장된다. 광주시는 16일 내년 완공예정인 증심사 지구 이주단지 진입로(의재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의재로 확장공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완공한다고 밝혔다. 공사 구간은 학동 3거리~증심사 3.7km 중 운림동~증심사 이주단지 300m 구간으로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현재 2차로에서 4차로(폭 25m)로 확장된다. (단면도) 시는 현재 공사구간에 식재된 30년생 가로수(목백합)를 옮기지 않고, 중앙분리대 화단에 존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동안 무등산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휴일이면, 병목현상을 보였던 이 일대 교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02년 92억원 들여 의재로 홍림교~운림동 620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했다. 한편 시는 광산구 도산동 동곡로 가운데 지하철 도산역~공군부대 후문 300m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를 6월에 착공해, 연말까지 완공한다. 21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가 완공되면 송정역~공군부대 후문까지 1.04km가 폭 35m 6차로로 뚫려, 송정역 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재로와 동곡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옛 송정 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22일 지구의날 행사 다채

### 광주극장 '환경영화' 상영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는 16일 지구의 날 기념선포식을 하는 등 본격적인 지구의 날 행사에 들어갔다. 16일 광주시와 에너지관리공단광주 전남지사를 비롯한 35개 시민·환경단체는 지구의 날 기념주관 선포식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행사를 가졌다. 또 이날부터 21일까지 광주의 한 교회에서는 '지구의 날 맞이 공동 단식' 행사가 펼쳐지며 21일에는 캔들라이트 작은음악회가 이 교회에서 열린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지구의 날을 목전에 두고는 더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전망이다. 20일에는 광주극장에서 '지구를 살리는 환경영화'는 주제로 영화 '불편한 진실'이 무료 상영된다. 22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지구의 날 본 행사는 자전거대행진, 기념식, 부대행사 7마당의 순서로 꾸며진다. 자전거대행진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옛 전남도청→옛 시청→광주역→무등경기장→양동시장→금남로5가 등 금남로 지역을 순회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광주 외제차 4,005대

### 작년말보다 102대 줄어

중·저가 외제차의 수입이 늘고 있는데도 광주시민들의 외제차 보유대수는 줄었다. 16일 광주시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광주시의 자동차는 45만3천157대로 지난해 말보다 0.72%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33만9천65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8만3천404대 ▲승합차 2만9천460대 ▲외제차 4천5대 ▲특수차 1천228대 순이었다. 이 가운데 화물차가 247대, 외제차는

102대가 각각 지난 연말보다 줄었다. 하루 평균 증가대수는 36대였으며, 세대당 보유대수는 0.91대(45만3천157대/49만8천137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구별로는 ▲북구 14만6천077대(32.2%) ▲광산구 10만7천386대(23.7%) ▲서구 10만5천264대(23.2%) ▲남구 6만2천572대(13.8%), ▲동구 3만1천858대(7.1%)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외제차 보유자들이 거주 지역을 옮겨거나, 차량을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매각한 것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중소 인력 채용, 경력보고 뽑는다

### 이력서·지원분야 중시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채용하면서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이 대우 에이텍,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등 지역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실시한 '지역 중소기업 인력채용 설문조사' 결과 41.2%가 '이력서'를, 38.2%가

'지원분야 경력'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지역의 인력채용이 경력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류 전형 시 이력서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보고 있다는 결과다.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에 대해서는 신입 구직자의 경우는 '보통 및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80.9%)는 부정적 평가가, 경력 구직자의 경우는 '대체로 준비되어 있다'(26.5%)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오경희기자 kroh@

## 광주 기능경기대회 폐막

2007 광주기능경기대회에서 이석범(17·광주공고)군이 폴리메카닉스 부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37개 직종에서 금메달 38명을 수상하는 등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는 금메달 38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7명, 우수상 29명 등 총 142명의 선수에게 메달과 상금을 직종별 1·2·3위 입상 선수에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시험면제와 함께 오는 9월 충남에서 열리는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 대표선수출전한다. 대회 관계자는 "대회 결과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돼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

국제약품 기원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인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여보" 사랑해요!

## "엄마" 사랑해요!

#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